

소수 (사사기 6:19-27)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같이 많은 적군이 쳐들어 왔는데, 300명으로 끝났다. 성경에 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된다. 막을 수 없고, 속절 없이 당한다. 원인이 사단이라서 그렇다.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 머리로 뛰어나고 교묘하고 그 꾀를 우리가 당할 수 없다. 더욱 괴로운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피할 수도 없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단하고 소망이 거의 비슷하다.

방법도 사단 것 따라가고 싶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 태어날 때 이미 악하다. 그리스도 통해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스도는 구원 받는 길이고, 문제 속에서도 나오는 길이다.

나만 내 인생의 답을 가진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눈 열리는 것을 답 났다고 하는 것이다. 이 답은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고 완전한 답이다. 이 말은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답이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사람은 이 답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늘 보게 된다.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 너는 오늘 기드온처럼 해라. 그러면 기드온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300명 소수 아니냐? 니 노력 없이 니 인생을 정복하게 된다. 경제가 힘이 들어도 기드온처럼 하면 일 안하고 승리하는 답이 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다.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어렵다. 되고 싶는데 잘 안된다. 그래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고백이 잘 안되니까 쓰기도 해야 하고, 힘이 들어도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날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는 쌓이기 시작한다. 응답이 조금씩만 쌓여도 이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정복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된다. 오늘 말씀 듣고 언약 되기를 바란다. 부모가 만일 이 언약으로 살면 자녀에게 내려준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우겨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다. 저주에서, 문제에서 해방이요 정복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하고 우기라. 이제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로 살면 인생이 편해진다. 확실하게 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증인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속에 이 답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언약회복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 기드온의 힘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 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삼만몇천명 왔지만 300명만 남기게 하였다. 7장 12절에 보면 적군은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올라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6장 1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붙였으니 이스라엘이 절대 못 이기는 것이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산에다 웅덩이, 굴, 산성 만들어서 산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3절에 보면 파종할 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고 하였다. 4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도 안 남기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짐승도 다 가지고 가고 밟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곡식 거둘 때 되면 와서 뺏어가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힘든 것이다. 먹을게 없으니.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였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셨다. 그 이유는 너의 조상들에게 들은 사실이 있는데 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냐는 것이다. 이 고난의 이유를 말한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첫 마디가 큰 용사

여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과 대화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와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준비했다. 염소잡고 무교병 만들고 그랬다. 그런데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팡이를 그 음식에 대니 바위 위에 불이 올라와서 다 태웠다. 이 바위는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여호와와 사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타났다. 나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삼손이 태어날때도 나타났다. 왜 여호와와 사자냐? 예수님이 여호와와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로 이 땅에 나타났다.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 같으면 인간은 이게 어디서 나온것이나 생각하기 쉽다. 이 예수는 옛날에도 나타나서 구약성경에서도 역사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말했으니,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사자가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였다. 그 날 밤에 25절에 보면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났던 그 날 저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였다. 너의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고 바알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다. 둘째 수소, 셋째 수소, 종 열명, 제법 부자였던 것 같다. 우상이기는 해도 우상을 섬기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다. 가난하면 우상 만들지도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무서워서 이걸 밤에 했다는 것이다. 왜냐면 가문과 성을 사람이 무서워서. 그때 종 열명이라는 단어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전쟁터로 나갔다.

7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 돌려 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면 상대는 메뚜기 떼인데, 사실 삼만 2천명도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러면 내가 역사 안하니까 돌려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 삼백명도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다. 햇불 들고 트럼펫 불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싸워서 도망갔다. 놀라운 메시지이다. 300명 가지고 메뚜기떼가 상대가 되겠는가? 삼만 이천명도 안되는데. 그리고 그 300명도 다른 거 한게 없다. 햇불이 그리스도의 빛 아니겠는가? 트럼펫 불렀다. 승리 아닌가? 뱀의 머리 박살이다. 그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 이후에는 미디안 왕도 잡고 그래서 다 죽였다. 이어서 승리했다. 그래서 6장 부터는 기드온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항상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다. 또 다시 우상숭배를 했다.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내가 원인이라고 양심적으로 이야기 하는 신자들이 있다.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경에 맞춰 이야기 하면 잘 믿는게 아니라 가다가 만 것이다. 내가 원인이 아니고 사단이 원인이다. 물론 옆집 사람이 원인이 아니고 내가 원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 사단 사이에 관계를 말하면 사단이 원인이지 내가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는 말인가?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하고 우상숭배한 것이다. 안하였으면 문제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잡을 언약은 뭐냐면 내가 속았습시다. 이걸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 잘 없다. 잘못했다고 울고, 교회와서 기도하고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사람이 좋으면 아주 좋아한다. 뛰어난 신자처럼 보인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근본 눈은 아니다. 성질이 아주 개차반 같아도 언약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일을 내는 것이다. 개차반 같은 전도를 계속 해야 한다. 착해도 전도가 안일어나면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원인은 우상숭배이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쳐야 하는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가 100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앞에 올 필요도 없다. 니가 언약을 잡으라. 그것이 마 6:33이

다.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기도할 필요도 없다. 마 6:33절이다. 기도하면서 우는데 울지 말라는 것이다. 답 있는데 왜 우냐는 것이다. 답을 안 잡으니까 울고 싶은 것이다. 답이 안들어오니까 울고 싶은 것이다. 속은 것이다. 울 일이 어디 있는가? 한번이라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쟁 붙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라, 다 그 다음 이야기이다. 이것도 안하고 다른 사람 원망까지 하면 더 안되는 것이다. 뒤집어 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시작이 6장 1절이다. 여기에도 써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다시 악을 행했다. 우상을 꺾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곱 번 반복되었다는데, 그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닌가? 한 대 치지도 않는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 하는이유는 그리스도를 잡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냥 우는게 아니고. 우는 기도도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그런데 계속 울기만 하면 기다리는 것이다. 다 답을 줬는데 왜 울기만 하나? 그 다음 메시지는 언약을 회복한 한 사람이다. 참 놀랍다.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부른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다음 메시지는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 없었다는 것이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다. 놀랍다. 안그런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뿌리가 있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에 뿐 아니라 지금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의 능력은 필요 없다는 것이 300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언약만 회복하면 문제 없어지게 되어 있어. 이 메시지 아닌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누리고 증인 될것이다라는 것이다. 다윗시대에 그랬다. 수많은 예가 있다. 솔로몬이 나중에 죄를 지었어도 처음에는 누렸다. 히스기야, 모세,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하라 그 말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 나가기 전에 둘째 수소 딱 찍어서 먼저 하게 했다. 수소 몇 마리 있는거 다 안다. 둘째 수소. 바알, 아세라 목상 다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다 언약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언약 먼저 회복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할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이 전쟁에 나갔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어. 이것이 너의 인생이고, 이렇게 준비했으니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 언약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이다. 부르기는 하나님 성령님 불러도 언약이 없으면 아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아직도 안들어온사람은 회개해야 하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 사 21:25이다. 그때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다고 하였다. 나중에 읽어보면 아주 회한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 소견대로 사는 나라가 미국이다. 거기에 300명 소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란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자기 소견대로 사는 나라, 미국이다. 잘 냈고 뛰어나다. 아무도 못 따라온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옆길로 나갔다. 우리는 이것을 고치려 미국에 살고 있다. 올해 이것을 고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바란다. 100팀 100 지교회 기도하기 바란다.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기드온이 뭐했는가? 언약 회복한거 말고는 별로 한게 없다. 이게 본래 그리스도이다.

## 2. 사단이 스스로 무너진다.

내가 힘으로 무너드리는게 아니라 지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구원 뿐 아니라 삶에도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살면 사단은 스스로 무너진다. 우리는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는 힘으로 사단을 죽이는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답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 죽이는 답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 사단을 죽이는 답을 줬다. 제일 먼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였

다. 그래서 이 답을 회복한 기드온,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다.

기드온은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6장 33절 이후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미 적들이 쳐들어 와서 싸우러 가야 한다. 그런데 불안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어떻게 보여줄건가도 자기가 정했다. 양털을 마당에 돌테니 이슬이 양털에 안 내리고 주위에만 내리면 믿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보니 그대로 되었다. 이걸 누가 할수 있는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이 아니라 또 물어봤다. 내일은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 안 내리면 믿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셨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저런 소리 하는거 다 해주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래도 불안하니 니 부하 하나 데리고 적군 안에 들어가보라고 하였다. 들어가니 적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군대 진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을 다 깨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확신을 갖고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했다. 자기도 약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군사도 300명 밖에 없었다. 상대는 메뚜기 같은데.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하실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건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언약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다.

세상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자도 그렇다. 믿는것과 사는게 다르다. 믿어서 구원받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모르는 신자가 태반이 넘는다. 너무나 기초적인것도 다 모른다. 세상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살고 성도들도 그렇다. 우리는 그러면 안된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자꾸 변질이 되어 간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이라 생각하는가? 제자가 남아서 제자가 다음대에 계속 일어난 사람은 없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제자가 없다.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된다. 어떤 상황도 상관 없다. 노바디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단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능력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언약을 잡는 것 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언약 없어도 할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이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스스로 죽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답이고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것이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다. 믿어야 하고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한단어만이라도 죽여라고 하면 역사 일어난다. 뱀의 머리를 깨고 인간을 운명에서 건지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들어와 역사하기 바란다. 누리면 인생이 이렇게 된다. 24시간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언약으로 살겠는가? 쉽지 않다. 언약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언약으로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관련된 말씀으로 계속 고백하라. 그러면 언약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진다. 우리 언약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언약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역사 일어나고 증인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정복한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로 시작하셨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뭔가? 언약이다. 그래서 소수의 특징은 숫자가 아니고 언약이다. 언약을 가지고 있고 언약으로 승리하고 그 언약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시대적인 제자가 다 되도 미국과 비교하면 아주 소수이다. 남미에 비하면 더 소수이다. 남미는 인구가 6억이 넘는다. 이 소수의 특징은 숫자가 아니라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이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이 단어를 주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이 총만한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바란다.